

성인병이란 어떤 병인가?

유동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성인병이란 말의 뜻은?

“성인병(成人病, Chronic Illness)”이라는 말은 원래 “노인병(老人病, Geriatrics)”이라는 어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노인병’이라는 말의 어감이 좋지 않아 일본에서 먼저 이를 ‘성인병’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는데, 성인의 질병이나 건강 문제에 관한 의학의 한 분야라는 뜻이다.

이 전문분야, 즉 성인병(학)내지 노인병(학)은 최근에 와서는 그 치료와 예방은 물론 관리·대책 및 복지·후생 문제 등을 다루는 폭넓은 사회의학적 학문으로 발전하여 요즘 전문가들은 물론 세인의 비상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성인병”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가령(加齡, Aging)과 함께 점차 그 발생이 증가하여 노쇠(老衰, Senility)와 더불어 난·불치성(難·不治性)으로 되어 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 비가역성(非可逆性)의 ‘만성·퇴행성 질환(慢性·退行性疾患, Chronic·degenerative disease)’인 것이다.

하여튼 이처럼 ‘난·불치성’ 또는 ‘현대인의 지병·숙환’이라고 까지 불리우는 이 ‘만성·퇴행성 질환’인

“성인병”은 오늘날 세상도처에서 전 대미증유의 굉장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성인병 전문>, <성인병 클리닉>, <성인병 센터>, <성인병 연구소>, <성인병 협회>, <성인병...> 등이 도처에서 발흥하는 것을 보면 시대는 바야흐로 ‘성인병 관리·대책’ 문제에 온갖 관심의 촛점이 모아지는 것 같다.

증가일로에 있는 성인병

문명이 발달하고 급속히 공업화가 되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질병의 양상도 크게 변모하여, 이전에 많았던 영양실조, 전염병, 기생충병과 같은 감염성질환에 의한 이환율이나 사망률은 매우 급속히 감소되고 있으며, 세계각국의 평균수명도 금세기초(1990년)의 대략 45세 이하에서 최근(1993년도)에는 약 75세까지 정말 놀랄 정도로 연장되었다.

가장 통계가 정확하다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970년에는 전인구의 약 10% 정도였지만 2000년경에는 대략 18~2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확실히 인구는 정체되고 노인층 인구가 놀랄 정도로 증가하여 노인층에 많은 ‘성인병’들이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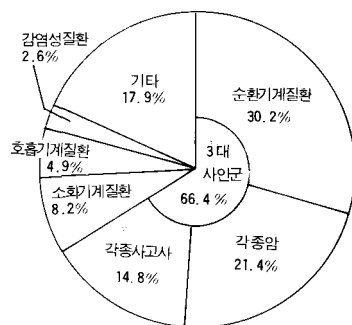
욱 증가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중년기 이후에 많은 성인병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대략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얼마전에 경제기획원이나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모든 양상이 구미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집계된 주요 대학, 종합병원들의 원보자료들과 병원협회, 의료보험조합연합회 등의 상병조사통



<도표 1.> 1993년도 사망원인 구조 (통계청 발표)

계 및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최근엔 전반적으로 입원환자의 약 55~60%는 40세 이상의 중·노년층의 성인병환자들이었는데, 질환별로는 뇌졸중,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성 제질환, 만성신장병, 만성위장병, 만성간장병, 암, 당뇨병, 제반 합병증들과 관련된 비만증, 만성호흡기 질환, 정신장애, 치매, 신경계 질환, 만성퇴행성 골관절증, 골다공증, 부정수소증후군 등의 '만성·퇴행성질환'인 소위 "성인병"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일반 급성질환을 포함한 총이환률을 보면, 40세 이하에선 대략 15% 정도이나 40세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약 31%, 60세 이상에서는 45~48%로서 확실히 중년기 이후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만성적 활동제한, 불구·무능력 상태, 기능이상·장애 등을 포함한 각종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중

년기 이후의 노년층에 매우 높았다.

이들 만성·퇴행성 질환 중 특히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증, 심장병, 당뇨병(만성 신장병 포함)등의 대표적인 순환기계통의 5대 성인병의 유병률을 연령별로 보면 19세까지는 약 1%, 20~39세까지는 약 12%, 40~49세까지는 약 34%, 60세 이상에서는 약 68%의 유병률로서 실로 가령과 노화와 함께 성인병이 급증함을 알 수 있었다.

주요사인이 되는 성인병

얼마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장 최근 통계인 1993년도의 사망원인 조사보고를 보면, 총신고사망자 230,722명 중 사인분류가 가능한 217,154건의 주요사인(主要死因) 구성비를 알 수 있었는데, 순환기계 질환이 30.2%로 1위, 악성신생물(암)이 21.4%로 2위, 각종 사고 사망이 14.8%로 3위의 순으로 나타나 성인병의 바탕이 되는 순환기계 질환이 주요사인 중에서도 단연 제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도표 1. 참조>

그런데 이처럼 사인(死因)의 으뜸을 차지하고 있는 "순환기계 질환"의 구성질환인 뇌혈관질환(뇌졸중), 심장병, 고혈압성 질환 등의 원인질환은 고혈압과 동맥경화 그

리고 당뇨병이므로 이들 질병이 그 많은 온갖 성인병들 중에서도 바로 핵심적인 3대 기본 성인병임을 알 수 있겠다.

주증을 이루는 3대 성인병

고혈압성 제질환의 원인인 고혈압(高血壓, Hypertension), 허혈성 제질환의 원인인 동맥경화(動脈硬化, Atherosclerosis), 내분비·대사장애성 제질환의 문제질환인 당뇨병(糖尿病, Diabetes-mellitus), 이 세가지 질병은 매우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필연적으로 동맥경화가 발생되고, 동맥경화가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당뇨병이 잘 병발(病發)되는데, 사실 당뇨병의 합병증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동맥경화"이다. 따라서 이 세가지 성인병은 마치 "동맥경화"라는 중심 톱니바퀴를 가운데 두고, '고혈압'과 '당뇨병'의 두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상호 연속적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적 연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고혈압은 원인질환이고, 동맥경화는 핵심적 질병이며, 당뇨병은 결과적으로 병발되는 속발성 질환이라고 하겠다.



유동준/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학위 수여

대한예방의학회 이사

사단법인 한국성인병예방협회 부회장

現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